



하림, 화인코리아  
2001서울국제식품기술전 참가  
제품홍보 및 기업이미지 제고



(주)하림, (주)화인코리아는 지난달 23~2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1 서울국제식품기술전에 참가, 자사 생산제품 및 기업이미지 홍보에 나섰다.

하림 및 화인코리아 제품 및 회사 홍보 부스에는 많은 국내외 참관객들이 다녀갔으며 특히 삼계탕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리부로식품  
종계업 진출

(주)체리부로식품(대표 김인식)이 대형 종계장중의 하나인 중원농장을 인수, 본격적인 종계업 진출이 이루어지게 됐다.

체리부로식품은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중원농장을 인수, 종계업계 진출을 가시화시켰다.

중원농장은 PS 5만수, GPS(D라인)2만수 규모의 대형 종계장으로 체리부로식품은 농장운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PS판매영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리부로는 일일 5만수 작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북 구미지역의 (주)신화산업(구 신미식품)을 인수했다.

체리부로식품을 인수한 도계장에 대해 전면적인 개보수를 통해 현지사업자에게 재 임대하는 형식을 통해 도계장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화, 마니커  
HACCP적용 도축장 지정

(주)하림(2000. 9. 8), (주)화인코리아(2000. 1. 20)에 이어 성화식품(주)(2001. 4. 23), (주)마니커 용인공장(2001. 4. 30)이 HACCP적용 도축장으로 지정, 본회 회원사들의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성화식품(주)는 지난해 4월부터 HACCP작업장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지정된 작업

장은 총 1200평규모로 약 3억여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성화식품은 HACCP을 위해 품질관리실 주도로 종업원들에게 작업장 위생관리 습관화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꾸준히 실시해왔으며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등 인적관리에 역량을 집중시켜왔다. 품질관리실은 수의사 2명, 검사보조원 2명, 생산, 공무, 총무파트 각 1명씩 총 8명이 HACCP 작업장 지정을 위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자로 HACCP적용 작업장 지정을 받은 (주)마니커 용인공장은 HACCP팀을 운용, HACCP적용 작업장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마니커가 추진해 왔던 닭고기의 해외시작 개척 및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완벽한 제품의 품질과 위생관리에 인정을 받게됨에 따라 소비자들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며 마니커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본회 김홍국회장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수여**

본회 김홍국회장((주)하림대표)이 오는 15일 11시 원광대 대학원으로부터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학위수여식 장소는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이다.

**제주가금처리장  
한라(제주육계조합)로 상호변경**

제주도 유일의 도계장인 제주가금처리장은 최근 주주총회를 개최 상호를 한라로 변경했다.

또한 한라는 위탁경영인 체제로 운영해왔던 도계장을 생산자가 직접 경영키로 했다.

한라는 육계사육농가가 자본을 출자, 도계장을 운영하는 형태이며 한라는 상호변경 및 운영방식 변경을 계기로 보다 나은 소비자 서비스는 물론 철저한 제품관리 및 안전성 확보로 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